



새해를 맞아 민화 원작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획전 '조선민화, 신세계에서 꽃피다-김세종 컬렉션'이 오는 2월 3일까지 신세계갤러리에서 열린다. '화조도'

‘조선민화, 을사년에 꽃피다’

생활 풍속을 민중적인 시각에서 그려온 작품을 민화라 일컫는다. 민화는 민초들의 바람이 투영돼 있으며 궁중화와는 변별되는 조형성을 지니고 있다.

오늘날에도 민화작가들은 자신만의 개성을 담은 작품을 창작하고 있다. 민화에 담긴 역사성과 의미, 당대와 다른 화풍은 여전히 새로운 영감과 감성을 선사하고 있다.

백의 해인 을사년(乙巳年)을 맞아 민화의 원작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광주신세계 갤러리는 신년 기획전 '조선민화, 신세계에서 꽃피다-김세종 컬렉션'을 연다. 오는 2월 3일까지.

이번 전시에서는 복을 부르는 '화조도'를 비롯해 '화조도', '책거리' 중심으로 대표 작품을 엄선했다. 조선민화 원화 17점 등을 선보이며 고가구와 도자기도 함께 볼 수 있다.

백지홍 큐레이터는 "민화는 조선 말기 혼란의 틈바구니 속에서 궁의 울타리를 넘어 민간 영역으로 나간 궁중 화원 화가들 그림으로 전문 화가, 아마추어 작가 손에 의해 새롭게 태어났다"며 "당시의 민화는 단순히 보고 즐기는 그림에서 벗어나 일상의 필요와 감성을 담아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전시에서 눈여겨 볼 수 있는 작품은 병풍이다. 조선시대 민중은 중요한 행사 때 병풍을 쳤다. 혼례를 치를 때도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병풍으로 당시 분위기를 대변했다. 특히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루

‘김세종 컬렉션’ 원화 17점 전시
2월3일까지 광주신세계 갤러리



‘까치호랑이’

는 혼례는 화조 병풍을 둘러쳐 부귀와 다산을 기원했다.

전시에서 나온 작품들은 민화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까치와 호랑이’는 서로를 바라보는 표정이 희극적이다. 가까운 듯 먼 듯한 모습은 서로를 향한 눈빛에서 드러난다. 까치는 호랑이가 전혀 무섭지 않은 듯 친구처럼 대하는데, 호랑이의 얼굴에선 심드렁한 표정이 읽힌다.

‘모란도’는 화사하면서도 소박하다. 고대부터 장식화로 애호됐던 모란도는 화조화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선비들의 자부심이었던 책거리(책가도)는 당대의 문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책가가 있는 그림 외에도 책을 비롯한 기물들을 나열한 그림도 이에 포함된다.

‘화조도’는 화려하면서도 다채롭다. 꽃과 곤충, 나비의 모습을 담아낸 것으로 그 나름의 독창성을 겸비했다. 계절에 따른 각기 다른 종류의 새들과 꽃들이 화면을 아름답게 장식한다.

한편으로 민화는 민예품이나 속화로 불리며 평가절하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조선미술을 연구한 일본 민예학자 야나기 무네요시는 '민화'라는 이름을 붙였으며 현대미술 거장인 김기창, 장욱진, 이우환 등도 민화의 조형성에 주목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영화 '은빛살구'

광주독립영화관 '은빛살구' 프리미어 시사회

8일 오후 7시... 15일 정식개봉

퇴근 후 뱀파이어를 소재로 웹툰을 그리는 정서(나예진 분)는 웹툰 작가가 비정규직 웹디자이너이다. 그의 남자 친구 경현(강봉성)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덜컥 서울 아파트 정착에 당혹되지만, 계약금을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다.

이에 엄마 미영(박현숙)은 이혼할 때 영주(안석환)에게 받았던 차용증과 색소폰을 건넨다. 정서는 아버지가 있는 강원도 동해시 목호항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가깝고도 멀리 지냈던 가족들의 '육망'에 휩싸이게 되는데...

광주독립영화관(관장 한재섭)이 영화 '은빛살구' 개봉 전 프리미어 시사회를 오는 8일 오후 7시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연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한국경쟁 배우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공식 개봉은 15일이다.

작중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차용증'은 이

목을 끈다. 문서에는 김영주가 최미영의 돈 9000만 원을 연이자 10%로 대출했으며, 위 돈은 벌교횃집 리모델링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김영주는 절대 주식을 하지 않으며, 다시는 최미영 허락 없이 리조트 및 지역 상권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문구들도 있다. 이는 인물들 사이에 펼쳐지는 에피소드를 짐작하게 한다.

작품은 올해 제50회 서울독립영화제에도 초청받았다. 나예진, 안석환, 강봉성, 김진영 및 최정현, 박현숙 등이 출연.

한재섭 관장은 "은빛살구는 예술성과 작품성을 동시에 갖춘 '아트버스터' 기대작으로 많은 관객들의 입소문을 타고 있다"며 "아름다운 벌교 바다와 자연 풍광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미지를 눈에 담아가기기를 바란다"고 했다.

무료 초대, 구급 품 신형.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강진 만덕산 백련사와 다산초당 일원’ 명승 된다

국가유산청 지정 예고

강진 백련사에서 다산초당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은 풍경이 아름답다. 이곳은 다산 정약용과 백련사 주지 혜장선사와의 교류, 정약용과 정약전 두 형제의 이별 등 역사성도 깊다. 만덕산이 동백나무 숲, 차나무 자생지 또한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경관이 뛰어난 '강진 만덕산 백련사와 다산초당 일원' 일대가 명승이 된다.

국가유산청은 2일 '강진 만덕산 백련사와 다산초당 일원'을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다.

국가유산청은 지정 사유로 백련사 초입에 위치한 만경루에서 바라보는 강진만, 가우도의 풍경, 천연기념물 동백나무 숲, 야생 차밭 등은 경관적 관점에서 가치가 높다고 밝혔다.

특히 백련사는 다산과 혜장선사가 왕래하며 학문적 교류를 나눴으며 두 인물의 차(茶)에 얽힌 일화 등도 전해 내려 온다.

백련사의 대웅보전은 18세기 화려한 불전 양식을 이루고 있어 학술적, 문화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김동관 주무관은 "만덕산은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역사성을 가진 다산초당과 백련사



정약용이 10여 년간 머물렀던 만덕산 기슭 다산초당.

가 위치하고 있다"며 "사적 정약용 유적, 보물 백련사 사적비 등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두루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노경수 광주대 교수,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이사장 선임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이사장에 노경수(사진) 광주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노경수 교수를 새 이사장에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신임 노 이사장은 광주대 부동산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광주도시공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지역의 도시계획과 문화적 공간 구상에 중추적 역할을 해 온 이론과 정책, 실무를 겸비한 대표적인 석학으로 평가받는다.

노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지난 2005년 설립된 재단은 그동안 시민들의 참여와 후원을



토대로 지역사회 문화 영역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왔다"며 "앞으로 도도살이 문화가 되는 도시, 고유한 자기 정체성을 갖는 도시 만들기 위해 힘을 보태겠다"

고 전했다.

한편 재단은 지역문화 교류 매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물론 지속 가능한 문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